

월간미술



497
June 2026

우수콘텐츠집지
2026

값 15,000	ISSN 1227-3120	
9 771227	312009	6



씨킴은 사물 앞에서 계산보다 먼저 몸을 움직이는 작가처럼 보인다. 사업가, 컬렉터, 갤러리 운영자로 더 익숙한 그는 이번 전시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이들을 하나의 화면과 사물 안에 풀어놓는다. 청주시립미술관 3개 층을 채운 200여 점의 회화, 오브제, 설치는 특정한 장르나 양식으로 정리되기보다, 한 사람이 보고, 사고, 모으고, 만들며 살아온 시간이 뒤섞인 풍경에 가깝다. 전시 제목은 밴드 '둘국화'의 동명 노래에서 가져왔지만, 여기서 '나의 세상'은 고립된 자기 고백이라기보다 남들이 정한 기준과 거리를 둔 채 스스로의 리듬으로 예술을 대하는 방식이다. 씨킴의 작업에는 시장을 읽고 작품을 수집해 온 시간, 일상의 사물과 폐품을 바라보는 직관, 강렬한 색채와 즉흥적 붓질이 뒤섞인다. 화면 위에서는 계산과 충동, 유희와 집요함, 자본의 언어와 아이 같은 천진함이 묘하게 공존한다. 작가는 커피, 블루베리, 카펫, 빈 상자, 버려진 오브제처럼 손에 잡히는 재료를 회화적 사건으로 바꾸고, 색의 번짐과 갈라짐, 물질의 응집과 확산을 그대로 드러낸다. 이때 사물은 재료라기보다 작가가 통과해 온 시간의 증거가 되고, 화면은 그 사물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무대가 된다. 전시는 수집과 창작, 소유와 표현, 감식안과 충동 사이의 경계가 한 사람의 몸 안에서 어떻게 뒤섞이고 다시 이미지가 되는지를 보여준다. 씨킴에게 예술은 세련된 형식의 완성이 아니라, 자기 안의 에너지를 끝내 외부로 밀어내는 놀이이자 노동이다. 전시는 그 과잉의 에너지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장면을 보여준다.

6 씨킴: 그것만이 내 세상

청주시립미술관

3.20~6.21

